

2005 9 월 호 제366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9월호

발행일 : 2005. 9.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련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해럴드미디어
대표 홍정옥

비매품

주부교실

2005 9
통권 제366호

생각해봅시다	4	한국여자 왜 강한가/이규태
실태조사	6	상가 서비스·안전시설 재점검 시급해
	8	저출산 원인, '경제력·교육비 부담'이 최고
	10	추석 제수용품, 작년에 비해 15% 소폭 인상
고발사례	12	소비자의 소리/곽정자
고발사례분석	14	중고제품 사용과 소비자보호
알아봅시다	16	상품권에 관한 소비자권리
주택정보	18	부동산 분양·임대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소비자정보	20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계시나요?
소비자지식	21	트윈슈머
금융길라잡이	22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소비자뉴스	24	신용카드 뒷면 자필서명 꼭 하세요
식품뉴스	26	아프리카산 수입 참기름 원료가 가장 많아
여성뉴스	28	성구매 방지 '존 스쿨' 첫 실시
포인트	30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들/노수민
음식이야기	32	올리브 오일
가정요리	34	화끈하고 얼큰한 매운요리
건강가이드	36	피부건조증
생활정보	37	집안에 숨어있는 나쁜 냄새를 없애자!
환경이야기	38	환경호르몬이란?
여행	39	단풍이 아름다운 산으로!
문화산책	40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중앙회소식	41	엄마와 함께 하는 어린이 농촌체험
지부소식	42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4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제66기 주부대학 수강생 모집 및 제12회 주부대학동문회 운동회

〈표지사진 : 엄마와 함께 하는 농촌체험(중앙회, 05. 8. 24~26), 건전소비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중앙회, 05. 9. 15)〉



한국여자 왜 강한가

이규태 / 전 조선일보 주필

20세기에 손꼽는 세계적 학자로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여사를 든다.

미드여사가 한국에 들렀을 때 한국여성들을 만나고 여성들의 활동현장과 여자대학을 둘러 보고 한 말이 생각난다.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여성에 대해 알고 있던 지식과 직접 접해본 한국여성과의 사이에 연관 지을 수 없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여성은 어릴 적에는 아버지에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늙으면 자식에 따르는 삼종(三從)의 노예요, 칠거(七去)의 굴레에 매여 살며 그저 아들만 낳는 도구로써 한낱 목석(木石)에 불과했던 기구한 인생이다. 아들을 낳으면 상(床)위에 누여 구슬을 들려 놀리우고 딸을 낳으면 땅바닥에 누여 기왓장 들려 놀리운다는 남존여비(男尊女卑), 그리고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차별. 그리고 말소리가 장지문밖에 들리지 말아야 하는 구속 문화였다. 한데 그 같은 종속, 차별, 구속 문화에서 오늘날 같은 활달한 여성문화가 탄생할 수 없다 잘라 말하고 분명히 그렇지만 많은 다른 문화의 명맥이 흐르고 있을 테니 그것이 빛인가 살펴보는 것도 학문의 한 영역이라고 권고하는 것이었다. 전통사회의 신분별 인구구성비를 보면 지배계급이었던 양반층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중인층과 상민층, 천민

층이었다. 한국여인의 구속논리는 극소수의 양반층의 덕목이요 중인이나 상민층에 요구된 바람직한 덕목이었을 뿐 침투돼 있지 않은 당위(當爲)문화에 불과했다.

참을 인(忍)자를 풀어보면 칼날아래 마음이 깔려있는 모듬 글씨다. 고통이 가혹할수록 그것을 이겨내는 고강도의 마음이 다져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국여성은 이 혹독한 인간 목석화와 남성위주의 중압에 눌려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로써 얻은 마음의 황금—곧 인고(忍苦)정신을 체질화했다. 한편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채 인고의 전통과 다른 가닥으로 이어내린—바로 마거릿 미드가 보아낸 활달한 심신의 맥이 근대화과정에서 인고의 맥과 이상적으로 복합되어 현대여성의 원형질을 형성한 것이다. 산소가 희박한 히말라야에 오르려면 일정(高度)을 오르내리며 코피를 쏟고 졸도를 하며 온 얼굴에 딱지가 생기는 고통이 수반되는(高所)적응을 해가며 오른다. 개천에서 부화한 연어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바닷물에 들랑날랑하며 염분 적응을 한다. 피부색이 변하고 살색이 변하도록 고된 시련으로 바다에 나가기 위한 단련을 한다. 그렇게하여 히말라야를 정복하고 그렇게하여 원양에 나가듯이 상류에 흐르는 혹독한 굴레를 참아낸 인고정신과 하류에 흐르는 활달한 기운이 조화되

어 오늘에 활성을 띄고 있다. 그것을 한국여인소(韓國女人素)라 부르기로 하자.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고 개발도상국에서 OECD국으로 진입하는 그 시간이 전례없이 빨랐다는 것은 상식이 되고 있다. 첨단 반도체산업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해온데 세상은 놀랐고 후진 후발국가들에서 그것을 알고 배우려 들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여인이 산업의 큰 변수로 작용했음을 든다. 산업전선의 최일선은 예나 지금이나 온통 여성 근로자가 차지해왔다. 더욱이 전자 반도체 등 한국산업을 선도해온 첨단산업의 최일선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한국여성들이다. 온 세상 사람들의 기능을 겨루는 기능올림픽에서 10연패 행진을 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의 과반이 한국여성인것도 우연이 아니다. 세상 어느 다른 여성에게는 없는—그 어떤 자질의 설명없이 불가능한 연패다.

근간에 세계 톱 골퍼들이 겨루는 LPGA마다 한국남자군이 10위안에 과반을 차지하는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왔다. 한국여성들의 어떤 빛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인가고—스포츠에서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요 지금도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우세하다. 3백여개 국가들이 겨루는—서양 사람의 체질이나 체격에 맞게 된 올림픽 종목에서 10위 안에 들게 한 것은 오로지 한국여인소 덕분이라 해도 과과는 없다.

그렇게 우세한데는 한국여인소가 표출된 장장근(長掌筋) 발달이라는 생리적 특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장장근은 손바닥과 손가락의 재간을 좌우하는 근육선으로 이것이 발달할수록

손재간이 좋아지고 퇴화할수록 손재간이 나빠진다. 모든 생리가 그러하듯이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앓을수록 퇴화한다. 한데 우리 옛 어머니들의 생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손을 많이 쓰는 작업으로 학술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서양 부녀자들은 서서 일하는데 한국 어머니들은 앉아서 일하거나 허리를 굽혀 일하는 것은 어머니가 집 안팎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가 손을 써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여아들이 즐겨 놀았던 전통놀이가 공기놀이-손뽕 맞추기-실뜨기였다는 것도 바로 생업과 직결되는 장장근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한국인의 장장근이 가장 발달했음은 상식이 되었으며 한국 여성의 장장근 발달도를 100이라 하면 한국남성의 발달지수는 80으로 여성보다 덜 발달한 것은 전통 한국여성들의 생업에서 손을 쓰는 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장장근을 발달시켜 현대 여성에게 물려주었던 옛 어머니들이다.

한국 여자선수들이 우승권에 드는 스포츠 종목일수록 손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종목이라는 것과 장장근 발달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한국여성들이 한국산업전선을 점거하고 기능 올림픽에서 연패(連覇)를 거듭하는 것도 한국여성들의 개개인의 기능이 우수하다는 것도 있지만 한국인에게 공통된 기능 분모인 장장근 발달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나 전자산업 등 미세 정밀분야가 뜨고 있는 것도 바로 일선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의 손재간 덕분이며 이 생리 특징은 한국의 정신력인 여인소와 조화되어 한국의 희망적인 국력이기도 한 것이다. [ㄷ](#)

상가 서비스 · 안전시설 재점검 시급해

기본적인 편의시설 미흡하고, 교환 · 환불 거절하는 업소 많아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문화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본회는 지난 5월 10일~6월 30일 관광특구지역 및 전자상가 6개 지역의 재래식 및 현대식상가 총 45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고객상담실 운영실태

상담실 위치 안내표시 미흡하고,
전문적인 소비자 상담 못하고 있어

총 45개 상가 중 39개 상가(86.7%)에서 고객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6개 상가(남대문 군안골, 동대문 청평화 · 동평화시장, 이태원 뉴월드프라자 및 주변상가 · 동호프라자, 용산 선인프라자)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고객상담실의 위치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25개 상가(6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상가(남대문 케네디상가, 명동 밀리오레)를 제외한 37개 상가(94.9%)에 상근직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주 업무내용은 소비자상담으로서 소비자의 불편 및 불만사항을 처리하되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업무인 상가 전체의

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곳이 많아 대부분 관리사무소와 동일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소비자 편의시설 운영실태

위생 상태는 양호하나,
탈의실과 편의시설 내 비치된 물품 부족해

총 45개 상가 95개 층의 소비자 편의시설 중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7개 상가 36곳(37.9%)에 불과했고, 휴게실은 24개 상가 49곳(51.6%), 유아 수유실은 7개 상가 8곳(8.4%)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화장실의 청결도와 환기상태는 7곳(8.0%)을 제외하고 대부분(80개 : 92.0%) 청결을 유

지하고 있었으며, 화장실이 없거나(남대문 케네디상가, 한영상가, 남대문1번가) 리모델링중인 상가도 4곳으로 나타났다. 세면대의 위생상태도 10곳(11.2%)을 제외하고는 대부분(79곳 : 88.8%)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68곳(76.4%), 비누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81곳(91.0%), 손 건조대 47곳(52.8%)이었다.

그러나 화장실 내에 가방걸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47곳(52.8%)이었으며, 소지품선반대의 설치는 22곳(24.7)에 불과하였다. 특히, 유아의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9곳(10.1%) 뿐이었다.

◆ 신용카드사용 실태 및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신용카드사용 거절하는 업소(20.2%) 있고,
교환 · 환불조건 까다로워 소비자 불만 많아

조사대상이 된 총 2,485개 업소 중에서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 업소는 1,983개 업소(79.8%)였으며, 친절도 면에서는 1,681개 업소가 ‘상’, 785개 업소가 ‘중’이었으며 19개 업소만이 ‘하’로 평가되었다.

교환 · 환불에 대한 응답에는 교환 · 환불이 모두 가능한 업소는 906개(36.5%), 제품의 하자시 교환 · 환불이 가능한 업소가 481개(19.4%),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이 불가능한 업소는 858개(34.5%), 교환 · 환불 모두 불가능한 업소 240개 업소(9.7%)로 교환 · 환불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변 교통 환경과 소방시설 실태

전용 주차시설 부족하고, 주변 도로 혼잡
비상시 탈출구 찾기는 아직도 어려워

전체 상가 중 20개 상가(47.6%)만이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주차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 용이성 조사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리(매우 편리 : 71.4%, 약간 편리 : 20.4%) 하다고 답했고, 주변도로 혼잡도는 ‘매우 혼잡’ 6.1%, ‘혼잡’ 61.2%, ‘적당’ 32.7%로 응답했다.

총 42개 상가 중 동대문지역의 남평화시장을 제외한 41개 상가(97.6%)에 소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개 상가(81.0%)가 ‘소방도로 진입이 용이하다’고 응답했다.

건물 내에 비상시 탈출구 찾기가 ‘매우 쉽다’는 응답이 22.4% 불과했지만, 소방시설의 표시에 대한 질문에는 77.2%(매우 쉽다 : 24.5%, 쉬운 편 : 52.7%)가 알아보기 쉽다고 응답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접근도 역시 81.6%(매우 쉽다 : 30.6%, 쉬운 편 : 51.0%)가 접근하기 쉽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 관광특구 지역 및 전자상가 지역의 상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아직도 서비스 내용면에서 미흡하고, 고객의 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객 상담실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상가 관련자들은 소비자에 대한 작은 배려가 세계적인 쇼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출산 원인, ‘경제력·교육비 부담’이 최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 재정 지원 확대 원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나라의 존폐 여부로까지 그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본회 충남도지부가 최근 도내 6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저출산 현상의 원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46.7% ‘여건에 따라 결혼 선택하겠다’고 응답

결혼은 ‘여건에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가 36.9%, 그리고 ‘하는 것이 하지 않는 편보다 낫다’가 14.1%, 그리고 ‘하지 않는 편이 하는 것보다 낫다’가 2.2%로 낮게 나타났다.

◆ 결혼 후 출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39.2%에 불과해

결혼을 하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한다고

3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출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9.2%, 출산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 27.3%로 나타났다.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

‘경제적 제반 여건과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경제력 등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른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 과다 지출에 대한 부담이 13.5%,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12.9%,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문제 10.0%,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5.7%로 나타났다.

◆ 육아 휴직과 양육비 지원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

육아휴직에 대한 58.8%, 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응답자 65.9% 긍정적으로 생각해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0.4%, ‘그저 그렇다’ 29.4%, ‘크게 도움이 된다’ 8.0%, ‘도움이 되지 않는다’ 8.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7%를 나타냈다. 따라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58.4%,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10.7%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원제도엔 53.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22.7%, ‘아주 그렇다’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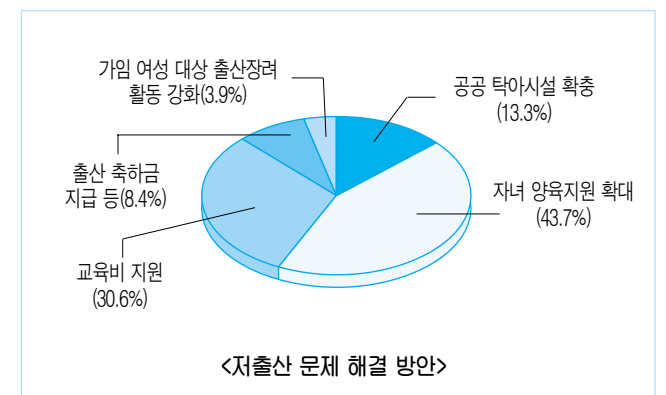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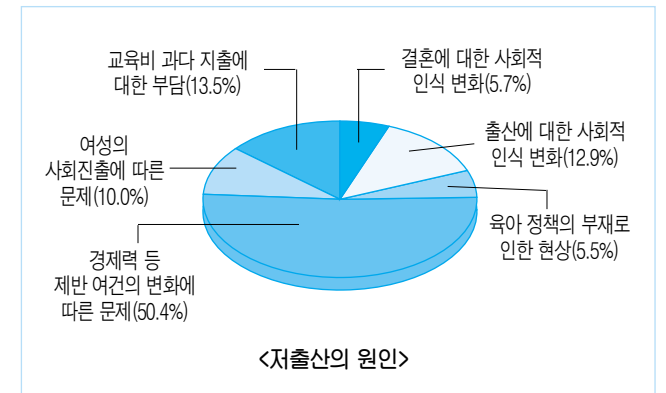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응답의 43.7%가 자녀 양육 지원확대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교육비 지원 30.6%, 공공 탁아시설 확충 13.3%로 나타났다.

결론

조사결과, 최근 우리사회에서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맞물려 경제적 어려움이 저출산



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력과 교육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 가시적인 효과만을 염두에 둔 정책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가족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육아 양육비와 보육시설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성 평등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석 제수용품, 작년에 비해 1.5% 소폭 인상

과일류와 야채류 가격 오름세,
제수용품 구입비용 백화점이 재래시장의 2배
- 4인 가족기준 25개 주요 성수품 구입비용 192,484원 -

본회에서 물가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25개구의 백화점(21곳), 할인매장(30곳), 일반슈퍼마켓(33곳), 재래시장(16곳) 등 총 100곳에 대하여 9월 6일~9월 7일까지 추석 성수품(총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가격이 오른 품목이 12개 품목이었고, 내린 품목은 11개 품목이었다. 기상악화와 태풍의 영향으로 물량확보가 어려운 과일가격이 급상승하였으나, 주요 추석 제수용품은 작년에 비해 1.5% 소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성수품 물가, 작년에 비해 추석 빠르고, 기
상여건 악화로 가격 소폭 오름세

추석(9/18)을 약 10일정도 앞둔 시점에서
추석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본 결

< 주요품목별 상승률 · 하락률 비교표 >

오른 품목		내린 품목	
단감(1개,200g)	187.7%	약과(350g)	-14.9
사과(홍로300g, 1개)	48.3 %	계란(일반란, 1판)	-9.2
국산꽃감	23.7 %	도라지(수입산,400g)	-9.1
배(신고700g,1개)	22.2 %	고사리(수입산,400g)	-7.9
대추(국산, 300g)	12.7%	밤(국산, 500g)	-6.3
		쌀(10kg)	-6.3

과, 작황 부진과 태풍의 영향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작년에 비해 과일류(단감, 사과,
국산꽃감, 배, 대추) 등이 대폭 오르면서 주요
상승품목(1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란 · 도라지 · 밤 · 북어포 · 동태포
등의 가격이 하락세(11개 품
목)를 보이면서 주요 성수품
은 작년에 비해 1.5 % 소폭
오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기본 차례상 비용 4인 가
족 기준 192,484원

4인 가족기준으로 25개 주

요 성수품목 구입비용은 192,484원이었고, 이
를 업체별로 비교해 보면, 재래시장에서의 구
입가격이 백화점보다 거의 절반 가격인
124,525원(47.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성수품 업체별 · 품목별 평균가격 비교

추석성수품 평균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업체별로 비교해보면, 평균가격의 최고가 가
많은 곳은 백화점으로서 27개 품목이었고 최저
가가 가장 많은 곳은 재래시장 26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단, 과일이나 쇠고기 및 조기 등 농
수축산물의 질은 업체별로 차이가 심할 수 있

다는 것을 감안하여야겠고, 단순히 가격비교만
을 하기 보다는 질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저가 품목이 가장 많은 유통업체

중부시장이 최저가 품목이 6개 품목으로 가
장 많았고, 중앙유통(영등포)가 4개 품목, CA
마트(공덕동) 4개 품목, 공방마트(강서) 3개
품목, 도깨비 시장(방학) 3개 품목으로 최저가
품목이 많은 순서였다.

<최애연 / 본회 소비자보호부장>

< 업체별 추석 기본 차례상 비용: 4인 가족 >

주요 품목(25개)	백화점	할인매장	슈퍼마켓	재래시장	총평균가
국산 간혹두, 배, 사과, 단감, 밤, 대추, 국산꽃감, 토란, 숙주, 시금치, 파, 국산 도라지, 국산 고사리, 수입산 조기, 동태포, 북어포,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송편, 밀가루, 두부, 청주, 약과, 산자	262,224	193,785	168,470	137,699	192,484

<업체별 평균가격 최고가와 최저가 비교>

업 태	비싼 품목	싼 품목
백화점	쌀, 국산간혹두, 수입참깨, 배, 사과, 단감, 밤, 대추, 국산꽃감, 배추, 시금치, 파, 국산 도라지, 국산 고사리, 수입산 고사리, 조기(부서), 동태포, 북어포,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송편, 밀가루, 두부, 청주, 약과, 산자(27개)	
할인매장	국산참깨, 토란, 수입도라지(3개)	청주(1개)
슈퍼마켓	수입간혹두, 숙주(2개)	수입꽃감, 토란, 배추,수입도라지, 수입고사리, 돼지고기(6개)
재래시장	수입꽃감(1개)	쌀, 국산간혹두, 수입간혹두, 국산참깨, 수입참깨, 배, 사과, 단감, 밤, 대추,국산꽃감, 숙주, 시금치, 파, 국산 도라지, 국산고사리, 조기(부서), 동태포, 북어포, 쇠고기, 계란, 송편, 밀가루, 두부, 약과, 산자(26개)

소비자의 소리

새로 구입한 전화기 하자로 교환받았으나, 또 기능불량으로 계약해지 처리

내용 전 성옥 씨(제주시 이호동)는 2005년 7월 6일 한국통신 제주지점에서 안(Ann) 폰을 구입하면서 대금은 전화요금에 합산하여 할부로 청구하기로 하였음.

구입 후 며칠 안 되어 잡음이 심한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사에 연락 하여 7월 19일에 새 전화기로 교환해 주었다. 새로 받은 전화기도 버튼이 잘 눌러 지지 않는 하자가 있어 한국통신에 말했더니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8월 12일)

그러나 소비자는 새 상품을 두 번씩이나 하자품을 접하고 나니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해당 통신사에 계약 철회를 요청하니 거부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한국통신 측에서는 본사 규정상 전화기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상품교환토록 되어 있다며 제품교환을 주장하였으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구

입가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 계약을 취소하고 상품을 반환 처리하기로 하였다.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자격증 교재 계약철회

내용 이 후미 씨(울산시 동구 전하동)는 미성년자인 아들(권 재현)이 학교에서 방문판매 사원으로부터 2005년 4월 12일 자격증 교재를 245,000원에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구입한 사실을 며칠 전에 우연히 아시고 반대하셔서 교재를 반송시켰더니 다시 수취거절로 되돌려 보내왔다. 판매업체에서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학생이 지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면서 반품을 거절한다고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방문판매법 제7조 및 민법 제5조에 의거(판매자가 미성년자와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9월 9일 계약철회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해당 회사(한일사)에 소비자 상담접수 처리부를 전송 후 해약

반품 처리하였다.

김치냉장고 디지털메뉴판 냉장상태 기능이 보이지 않아 환불처리

내용 김 영희 씨(대전시 유성구 원내동)는 홈쇼핑을 통해 위니아 덩채 김치냉장고를 10개월 할부로 95만원에 구입하였다. 상품은 2005년 9월 8일에 인도 받았고 작동을 해보니 디지털 메뉴판의 냉장상태기능 부분이 보이지 않아 사용상 어려움이 있는 결함을 발견하였다.

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하니 담당기사가 제품 자체의 결함이므로 판매한 홈쇼핑 측에 교환 요청하라 한다. 홈쇼핑측에서는 본래 제품자체가 그렇게 출시된 것이라고 그 상태로 사용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용 설명서상에 명시된 세부 기능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까지 숙지하여 사용할 때마다 번거롭게 가늠하여 사용을 하라는 말인데 이런 경우 피해구제 방법을 알고 싶다.

처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공산품은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므로 해당업체와 합의하여 제품반환하고 구입가 전액(95만원)을 환급 처리하여 주었다.

과다하게 청구된 병원 간병비 환급 처리

내용 이 학례 씨(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는 의왕시 소재 “계요 노인전문 병원”에 전화상담 시 1인당 30일 기준 간병비 포함 170만원이라

하여 부인과 함께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입원하였다. 퇴원할 때에는 훨씬 많은 금액(본인; 1,342,000원 부인; 1,330,000원)을 청구하였고 간병인 한사람이 환자 2명을 동시에 간병하고서 1인 1일 57,000원을 청구하였다고 부당함을 제기하였다. 두 노인이 모두 생활 보호 대상자이며 장애인인데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청구로 납부했기 때문에 이미 처리되었지만 억울하다고 조정해 줄 것을 도움요청 해왔다.

처리 해당병원에 민원 제기한 내용에 대해 조회 확인 후 과다 청구된 부분을 인정하고 간병 비용으로 청구된 170만원 중 855,000원을 환급 처리하여 주었다.

정비업소에서 잘못 교체해준 오일펌프 교체 수리비 환 불처리

내용 김 기노 씨(충남 서천군 서천읍)는 마티즈 자동차가 운행 중 멈추고 이상증세가 있어 한일공업사에 의뢰하여 수리 점검결과 오일펌프에 이상이 생겨 교체하였음. 교체 후에도 주행 중 고속도로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또 멈추었다.

다른 공업사에 의뢰하였더니 멈추는 사고 원인이 오일펌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이어 관련 부분 이상으로 고장을 일으켰는데 멀쩡한 오일펌프만 갈아놓고 부품대와 수리비 18만원을 요구하였다 한다.

처리 오일펌프를 원래대로 교체시켜, 시험운행 후 전액 환불 처리 하였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중고제품 사용과 소비자보호

소비생활에서 중고제품 사용으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의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간과할 수 없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를 비롯하여 모터 싸이클과 컴퓨터·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이 많다. 특히 자동차는 중고매매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접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생활가전 제품류 역시 중고품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와 함께 이용자의 문제제기가 늘고 있다. 주로 품질·가격 불만과 A/S불만 및 매매업소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와 처리 수속의 지연에 따른 피해 호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바, 다음은 유형별 고발사례와 그 처리결과를 소개한다.

품질불만

사례1 전자센터에서 25만원에 구입한 중고 컴퓨터를 가동하니 소음이 너무 커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반품시켰으나 환불을 계속 미루고 있다.

처리결과 품질 불량 인정하여 전액 환불 처리함.

사례2 무쏘자동차를 840만원에 2일전에 구입할 때 운전석 쪽 가벼운 사고로 판넬만 교환했다고 하였으며 차량 성능점검 기록부에도 이상이 없었으나, 기름이 정상 유입되지 않고 진동이 심하며 제동장치에도 이상이 있어 점검해보니 사고 경력 5회의 차량으로써 브레이크와 브란자 등의 하자로 인해 수리 견적비가 70만원이 나왔으므로 구입을 취소시키고 싶다.

처리결과 차량 성능점검기록부상의 내용과 품질이 상이함을 인정받아 수리비 전액을 매매업소에서 부담하기로 함.

수리 등 A/S불만

사례1 중고가전제품 매장에서 구입한 냉장고가 두 달 만에 고장 나서 수리 요청했으나 중고품은 원래 A/S가 안된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다.

처리결과 중고품의 품질보증 여부나 보증기간 등은 개별 계약에 따르나 보증기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6개월로 함을 지적하여 수리해 주도록 함.

사례2 중고가전제품 매장에서 구입한 김치냉장고의 버튼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 업체에 의뢰한 결과 수리비가 6만원 나왔으므로 판매한 중고품매장에 청구하니 가져오면 수리해 줄 수 있다며 거부한다.

처리결과 먼저 판매한 매장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나 수리한 내역과 대금을 지불한 영수증이 확실하므로 수리비의 반을

부담하기로 합의 함.

허위·과장광고 및 업무처리 지연

사례1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보니 사이트상에 올린 내용과 실제 제품상태의 차이가 너무 크고 가격도 비싼 것을 알게 되어 연락하려 해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처리결과 인터넷상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의뢰하되 평소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한 후 구매하는 습관을 기를 것을 안내함.

사례2 매매업자가 무사고차량이라고 하여 구입하였으나 확인결과 사고 차량으로 밝혀졌으므로 해약 및 환불과 함께 등록처리비용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처리결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대한 올바른 고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명의이전비용까지 배상해야함을 지적하여 계약의 해지 및 차량대금 환급과 함께 등록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함.

소비자 유의사항

擬 중고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나 제품의 생산연도나 상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므로 구매 전에 인터넷상의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하여 가격대를 미리 점검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이다.

擬 품질문제는 직접 사용해 보기 전에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면 제품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점검 후 결정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에 따른 보상기준에도 매매업자가 위의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매매 알선 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한 경우는 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하여야 하며,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증여부나 보증기간 및 보상대상 부품은 반드시 개별약정서를 받거나 특약란에 기재하여 받아두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擬 TV·냉장고·세탁기 등의 중고 가전제품류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나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나, 보증여부나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르므로 반드시 개별약정서나 특약란에 기재 받아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만일 보증여부나 보증기간에 대한 개별약정이나 특약이 없었다면(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 최소한의 보증기간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가의 중고가전제품이라도 사후 A/S 등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명렬 / 본회 소비자보호국장)

상품권에 관한 소비자권리

- 잔액현금 지불 거절 · 할인매장 사용 거절 등 소비자 문제 발생,
상품권 권면에 표시돼 있는 내용 확인하고 소비자권리 요구해야 -

최대명절인 추석에 보내면서 명절선물로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품권을 사용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다음에 상품권 이용 소비자 피해사례와 그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1992년 2월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다양한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상품권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이용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상품권을 규율하는 제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고시」,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과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하 피해보상규정) 등이 있으나 자율규제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소비자권리 주장이 요구된다.

사용 잔액의 현금 환급 거절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품권을 사용한 이후 발생하는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을 거절당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인지하고 소비자 스스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알아두세요!

표준약관 제7조 및 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을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해 주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현금으로 청구하는 소비자에 대해 즉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경과해 사용할 수 없어 상품권을 그냥 버린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현재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상품은 상사 채권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상사 채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일 경우 문제가 되고 있다.

● 알아두세요!

표준약관 제 6조에 의하면 상품권의 사용기간은 상사 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보상규정에는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상사 채권 소멸시효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인매장에서의 사용 거절

상품권 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이나 장소에 대한 제한이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할인매장이나 심지어 상품권에 표시돼 있는 가맹점에서조차 사용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

● 알아두세요!

표준약관에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고객은 발행자 및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해 가격 할인 기간을 포함해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상품에 대해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상품권 권면 금액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의 훼손 · 도난 · 분실

상품권의 도난 · 분실 등에 대해 일부 업체에서는 소비자로부터 도난 신고를 접수 받고 각 매장에 이를 통보하여 도난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경우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알아두세요!

훼손된 상품권의 경우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고객이 요구하면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단,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품권이 훼손돼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거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물품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을 때는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해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을 교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간한 ‘소비자시대’에서 발췌〉

부동산 분양·임대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부동산분양정보, 내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아파트 후분양제 2012년까지 완전 정착키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 부도,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발표한 '부동산·임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의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건축허가 취득 여부 등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내년 상반기부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선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 부문은 2007년까지, 민간은 2012년까지 후분양을 완전 정착 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후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과 공공 택지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후분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각 부문별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이다.

건교부 홈페이지 확인...

분양사업자·건축허가정보 등 제공

◇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 구축

내년 상반기중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이 구축되며,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케 된다.

소비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시행·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등 사업자 정보와 건축허가정보(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분양보증·신탁계약 체결 여부 등), 분양정보(분양규모, 분양가격, 모집정보) 등 분양 관련 주요 정보를 모두 확인,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양 사업자는 광고사 건축허가 취득 여부 등은 00시 홈페이지(www.000.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후분양 활성화

공공 부문의 경우 내년까지 주택공사 및 수도권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7년부터 전체 물

량에 대한 본격적인 후분양을 실시한다.

민간은 자율적 후분양을 유도해 2012년 후분양이 완전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후분양하는 민간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대 지원하는 한편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클린애드 네트워크' 구축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 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하는 클린애드 네트워크를 하반기 중 구축해 자율 시정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분야 표시·광고 수칙 제정, 사업자교육, 소비자단체 광고 모니터링 지원, 민간 광고심의기구 자율심의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조망권,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 사실과 다른 투자수익 보장 광고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품질·주거환경' 평가 등급표시제 시행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시행

하자보수 지연 및 품질 피해와 관련해 내

년 상반기 중 공동주택의 품질 및 주거환경을 평가해 분양 공고 시 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한다. 등급은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소방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주택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향후 2~3년 뒤에는 보증기관이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증료를 받고 완공된 주택의 품질을 대신 보증하는 주택품질보증제도(Home Warranty)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 시장환경 조성

올 하반기 중 주요 임대아파트와 상가 건물 사업자의 약관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강화한다. 상가 임대차 분야의 경우 내년 중 각 지자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신속한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공정위는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분양가 담합, 재건축 입찰 담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하고,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분양가 책정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사관을 현지에 즉시 파견하는 등 조기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또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계시나요?

현금영수증 챙겨서 소득공제 받으세요

○ 근로소득자가 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중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가족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근로소득자의 사용금액에 합산

- 배우자 및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등의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계산사례

기본사항 : 총급여금 4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800만원, 본인 현금영수증 사용액 400만원, 배우자 및 가족 현금영수증 사용액 200만원

소득공제금액 { (8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4,000만원 × 15% } × 20% = 16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 현금을 낼 때 다음 중 하나의 본인확인수단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② 실명확인이 된 적립식(멤버십)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굿보너스 카드 등)

③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또는 기타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세요.

- 휴대전화번호 또는 기타 카드(위 ①, ② 외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본인 확인수단으로 등록하여야 본인의 사용내역으로 기록된다.

-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발급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급하여 본인 사용내역으로 기록된다.

잠깐!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으셨나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시엔 소득공제 확인서를 직접 출력해 볼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트윈슈머’ - 인터넷 쇼핑할 때 상품평(사용후기) 읽어 본 후 구입하는 소비자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로 상품이미지와 설명 하단부분에 그 상품에 대한 상품평(사용후기)란이 있다. 상품평란은 제품의 이용 고객이 그 제품 사용후기를 올려놓는 곳이다.

최근 미국·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쇼핑으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사용후기인 상품평을 읽어보고 물건 구입의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새로운 소비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트윈슈머’다.

‘트윈슈머’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이미 물건을 산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 소비한다고 해서 ‘트윈(Twin, 쌍둥이)’과 ‘컨슈머(Consumer, 소비자)’를 합쳐 ‘트윈슈머’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의 사용자의 평가와 가격 비교 등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되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인터넷 사용자 중 3300만 명이 인터넷상에 제품평가 의견을 올린 경험이 있고, 가전제품

을 구매하는 유럽 소비자의 50% 이상이 제품 사용후기를 참고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더라도 ‘트윈슈머’를 통한 소비경향은 갈수록 두드러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품평가와 가격을 비교해주는 인터넷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이를 기준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의 제품평들은 초보적 수준을 넘어 전문가에 가까운 분석적 평가들이 많다고 해서 ‘트윈슈머’가 새로운 소비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네티즌사이에서는 상품평의 내용 중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목적으로 업체 스스로가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따라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 그 속에서 유익한 정보를 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체 모두가 건전한 ‘트윈슈머’ 문화 조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최근 과다한 부채증가, 신용카드 남용 등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올바른 개인신용 관리 요령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알고하면 유익합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금융이용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건전한 신용사회를 구축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했다. 이번 달은 책자의 내용 중 신용불량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신용불량정보 등록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인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나 금융회사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을 사전통보서식에 따라 등록일 1개월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보한 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 금융거래 시의 불이익

扶대출 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扶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금지된다.
扶각종 신용카드(백화점카드 포함) 발급 시 제약을 받게된다.
扶가계 당좌, 당좌예금 개설 금지 및 해지

처리된다.

扶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된다.
扶금융거래 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扶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 거래(신용카드 발급 포함)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에 있어서의 불이익

扶회사 취직 또는 비자 발급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扶각종 생활용품의 신용구매 시 제약을 받게 된다.
扶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 기타 재산상의 불이익

扶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가압류 될 수 있다.

扶모든 재산상의 법적인 권리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주의하세요!

■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연체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주기적으로 자기신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불량자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자신의 신용 정보를 수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주소지나 전화 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거래금융 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가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사실을 등록일 1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한 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연락처가 변경되어 통지를 못 받을 경우 본의 아니

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용불량정보의 해제 및 기록의 삭제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었다가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신용불량 거래처로 등록한 금융회사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신용불량거래처에서 해제는 되었어도 신용불량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신용불량 기록이 보존·관리되며, 이 기록은 보존기간(신용정보 관리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렇게 과거의 신용불량 기록을 일정기간 관리하는 이유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개설할 때 그 기록을 참작하여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각 금융회사는 관행상 신용불량기록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위원회〉

< 신용불량정보의 등록 및 집중시기 >

집중기관	등록대상	등록사유	정보제공기관	정보이용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금연체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	금융회사	금융회사
	신용카드대금 연체	5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		
	할부금융 대금			
	대위변제·대지급금	대지급금·구상채무 등을 3개월 이상 보유		
	어음·수표 부도발생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부도 시		
	금융질서 문란행위	금융사기, 부정대출, 허위서류제출,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		

* 30만원 초과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 (다만, 30만원 이하라도 3건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등록)

.....
신용카드 뒷면 자필서명 꼭 하세요
.....
... 미서명 분실카드 보상 못 받는다
.....

뒷면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제때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7월 신용카드 분실 신고 후 피해 전액을 보상을 받을 것을 카드사에 요구했으나 카드사는 뒷면에 자필서명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60%만 보상하겠다고 밝혔고, A씨는 결국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카드 약관에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카드사가 제시한 60% 보상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B씨의 경우는 평소 남편의 카드를 갖고 다니며 사용하다 2003년 9월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고 도난신고 후 피해 전액 보상을 요청했지만 카드사가 50% 이상 보상할 수 없다고 나오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를 본인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B씨는 카드사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등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하다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 카드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금융회사, 사전통지 없이 개인 연체 등록해
.....

금융회사들이 사전통보 없이 개인의 연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정이 바뀐에 따라 금융 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번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최장 7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금융 거래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또는 카드대금 납부가 지연되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연체정보를 등록시키고 있다.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종전과는 달리 신용불량 정보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체 정보는 등록일로부터 최장 7년간 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가 공유한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연체 정보는 최소 1년까지 남아 있고 개인의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
청소년 휴대폰 개설할 때 본인 이름으로 등록해야
.....

청소년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과 성인물 접속절차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휴대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 지키기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휴대폰 통신사업자들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휴대폰을 개설할 때는 청소년 본인 이름으로 등록토록 하고 요금 내역서에 콘텐츠 제공업자의 이름과 연락처, 거래 내용, 거래일자 등 구체적인 정보이용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또 요금 부과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지급결제서비스 등의 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음란물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성인인증절차와 함께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성인물을 다운로드하는 단계에서도 본인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SKT, KTF 등 이동통신 3사에 보내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파트 실내공사 계약 해지 가능
.....

새시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인테리어 공사계약 해지를 금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은 인성산업에 시정권고 조치했다. 인성산업은 아파트 새시 설치 공사를 맡으면서 ‘계약 후 15일이 지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마련해 입주자들과 계약을 맺어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의 공사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고객의 계

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라며 “민법에 따라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용하지 않던 카드 연회비 돌려받으세요
.....

신용카드에 가입만 하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연회비 반환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외환카드는 최근 회원들에게 “1년 이상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 거래가 없는 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LG카드는 4월부터 1년 이상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이 요청하면 연회비를 돌려주고 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곧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연회비 반환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
美여행때 출국 전 체류지 주소 알려야
.....

다음 달부터 미국으로 여행갈 때 미국내 체류지 주소를 항공사 등에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탑승 수속이 불가능해지는 등 미국행 수속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진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의 사전입국심사제도를 강화, 새롭게 제정한 ‘국경보안 강화법안’을 오는 10월4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취항 항공사는 미국을 여행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출국 전 여권정보 외에 미국내 체류지 주소를 자세히 통보받은 뒤 항공기 출발 후 15분 내에 미국 세관이민국에 승객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앞으로는 항공편 예약 또는 출국 수속 시 체류지 주소를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해줘야 한다.

따라서,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할 때 체류지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중요한 고객 정보가 잘못 입력될 경우 공항에서 출국 자체가 안 되거나 미국 현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지**

.....
**아프리카産 수입 참기름 원료가
가장 많아**
.....

국내서 판매되는 수입 참기름의 원산지를 상표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대부분의 수입 참기름이 원료인 참깨를 가져온 지역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수입산’으로만 표기해 판매되기 때문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참기름 제조업체들이 원료인 참깨의 구체적인 수입 국가를 표기하지 않고 ‘수입산’ ‘참깨분’이라는 포괄적인 표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수입산’ 표시 상품이 대부분인데 이들 상품의 원재료 구입 경로를 추적해 보면 인도와 수단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에서 생산된 참깨를 사용한 상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참깨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적어 수입품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참깨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원산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식품업체들은 정확한 수입 국명을 표기하지 않고 수입산이라고 표기한 것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는 있지만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참기름 중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참깨가 아닌 참깨분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업체나 개인이 임의로 참깨를 수입할 수 없다. 농민보호 차원에서 참깨 수입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만 이뤄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기름 제조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참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유통공사가 매년 수차례에 걸쳐 입찰을 통해 각국 에이전시에서 수입한 참깨를 구매하는 방법과 유통공사가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시하는 수입 공매권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 업체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 참깨를 구입하고 있으며 제품 가운데 특별히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붙인 상품은 두 번째 방법으로 수입된 원료라고 보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유통공사가 수입한 참깨를 원료로 써야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아프리카산이라고 해서 품질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
감자칩에 ‘발암 경고’ 문 붙여라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감자칩과 프렌치프라이(감자튀김) 등에 암 유발 물질 함유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이 붙을지도 모른다.

빌로키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27일 맥도널드, 버거킹, 웬디스, 프리토레이 등 9개 패스트푸드 및 스낵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감자칩과 프렌치프라이 등에 발암 의심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함유돼 있을지도 모른다면 법원에 이들 식품에 암 유발 물질 함유 경고 문 부착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로키어 장관은 “제소의 목적은 감자칩이나 프렌치프라이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식품이 건강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푸드와 스낵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로키어 장관이 승소할 경우 피소 업체들은 매출의 급격한 감소 등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질·녹말 음식을 고온에서 요리할 때 형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무색 투명 결정체로 2002년 스웨덴 국립연구소의 일부 동물실험에서 악성 위종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
**중국산 수산물에 발암물질 검출,
정부 ‘뒷북 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 22일 수산물 도매시장에 유통 중인 중국산 잉어 붕어 가물치 등자 개 등 민물고기 4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잉어와 붕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말라카이트그린은 양식 어류의 운반과 저장 과정에서 곰팡이 발생 방지제 및 살균제로 사용되며 1990년 초부터 발암성 물질로 분류돼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문제의 중국산 잉어와 붕어는 식당, 붕어죽 가공업체, 가정집 등에 이미 팔려나가 수거 및 폐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물고기의 유통기한은 통상 4, 5일.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중국산 장어, 양념장어에 이어 최근엔 베트남산 양념장

어에서 잇따라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는데도 해양수산부가 수입 민물고기에 대한 말라카이트그린 잔류검사를 사건 발생한 달이 지난 최근에만 시행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산 장어에서 검출된 말라카이트그린의 농도는 통상적 장어 섭취량과 비교해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붕어나 잉어에서 발견된 것도 인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23 29일 중국에서 수입된 민어 미꾸라지 붕어 향어 등자개 뱀장어(대만산) 잉어 씀지붕어 등 8개 어종 27건을 수거해 현재 16건에 대해 말라카이트그린 함유 여부를 조사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잉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해수부는 9월 6일 산하 국립수산물학원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우리나라 민물고기 주요 산지인 전북 민물고기양식장 등 3곳에서 붕어, 메기, 등자개 8점을 무작위 채취, 말라카이트그린 함유여부

를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뇌종양 유발 감기약 여전히 유통
.....

뇌종양(뇌졸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을 금지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든 감기약이 아직까지 일선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 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PPA 성분 함유 감기약 167개 제품이 모두 2만2031건 처방됐다. 이 중 9846건은 실제로 약국에서 환자에게 전달됐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에서 전산 점검을 통해 PPA 성분이 든 감기약 처방을 자동 차단하지만 일부 소형 병원과 약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청의 지도 단속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

성구매 방지 '존 스쿨' 27일 첫 실시
... **상대여성과 가족역할로 성구매 잘못 인식시켜**

법무부는 8월 27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 매사범 중 초범인 8명을 대상으로 재범방지교육(일명 존 스쿨, John School)을 처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8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한국 에이즈퇴치연맹, 한국소시오드라마학회 등 민간 전문단체 강사가 참여하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단체인 '휴먼케어센터'의 대표가 나서 성매매의 해악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성구매 초범 남성에게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대신 교육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존 스쿨'을 도입한 법무부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처음 시행한 뒤 내달 중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존 스쿨'이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대부분이 자신을 '존(John)'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민단체가 사법 당국을 설득해 1995년 성매매 재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존 스쿨'로 이름 붙였으며,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性)인식을 교정하고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초범 성구매자들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기회를 주어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정부·NGO, 저소득층 여성 일자리
2천425개 창출

민간기업과 정부, 시민단체(NGO)가 협력해 저소득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SK그룹,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3년간 2천425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SK그룹,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이날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여성프라자 1층에서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조정남 SK자원봉사단장,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장 등 관련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저소득층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통합교육보조원 프로그램"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장애통합교육보조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여성들을 장애 학생의 교육 전문보조원으로 선발, 교육 후 관련 기관에 배치해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시범 사업기간, 2006년 사업 확대기간, 2007년 사업 안정기간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올해 4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년간 매년 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협약식에서 "빈곤층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남 SK자원봉사단장도 인사말을 통해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두 가지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혈 채취 20~34세 산모로 제한

내년부터 제대혈 채취는 임신 37~42주째에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로 국한된다. 또 악성종양이나 당뇨병, 혈액질환 등이 있거나 해외에서 귀국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산모는 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제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영하 135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편 이식 기관에 공급시 검사결과 및 관련 기록을 제공토록하고 제대혈은행이 폐업할 경우 관련 기록을 다른 제대혈은행

에 이관토록 했다. 채취된 제대혈에 대해선 혈액형과 조직적합성 검사, B·C형 간염 및 에이즈 감염 검사 등 18개 항목의 검사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채취시 반드시 산모의 사전 서면동의를 구하도록 하되 동의 전에 보관기간,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토록 했다. 제대혈은 신생아 분만 뒤 나오는 탯줄과 태반 내 혈액으로 성체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원재료로 사용된다.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제대혈은행 16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채취와 검사, 보관, 공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식에 부적합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등 보관상 허점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여성가족부, '매월 6일은 육아 데이(Day)' 추진
캠페인 실시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매월 6일을 육아 데이(Day)로 정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캠페인 취지는 기업이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배려하고, 보육시설은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부모들이 자녀 보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고 보육시설을 감안해 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6일 첫 실시되는 육아 데이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와 노동부 및 기업체가 공동 참여했고, 시민단체와 함께 육아데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들

왜 그 미친 여자가 매일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와서 헤매고 다니는지 처음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여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이면 나타났고 109동 앞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뱅뱅 돌면서 아파트 위를 올라다보곤 했다. 며칠에 한 번씩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헤매는 것으로 보아 노숙자는 아닌 것 같았다. 아이들이 히죽히죽 웃으며 다가서는 여자를 무서워했고 임신하여 배가 부른 여자만 나타나면 무조건 그 뒤를 한없이 따라 다녀 두려움에 떨게도 하였다. 그 여자 때문에 반상회도 수 차례 열고 경비 아저씨를 시켜 미친 여자가 단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도 보고 지구대(파출소)에 연락하여 그 여자를 끌고 가게도 하였다. 그러나 그레봐야 단 며칠 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 여자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손해를 끼친 일도 없으며 그저 히죽히죽 웃으며 아이들 뒤나 임신부 뒤를 따라 다녔을 뿐이므로 죄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도 지구대로 데려가 ‘다시는 이 동네 오지 말아요.’ 하고 옥박지르는 외에는 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야? 왜 하필 이 아파트야? 친척이라도 있나?”

차츰 아파트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했다. 동대표인 나는 주민들의 궁금증이 커지자 그녀를 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어느 미친 여자처럼 더럽지도 않았고 얻어먹지도 않았으며 아무에게나 말을 걸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여자의 눈은 몽롱했지만 맑았고 그리고 히죽 웃을 때면 그 표정이 울 것처럼 슬퍼 보이곤 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10층 우리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

가 내려다보니 땡벌이 내려 찌는 날씨인데도 그녀는 놀이터 그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놀이터로 내려갔다. 그 여자와 말을 좀 해보고 싶었고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먹고 싶었던 것이다.

“아줌마, 밥 먹었어요?”

여자가 겁먹은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그네에서 슬그머니 일어났다.

“괜찮아요. 겁낼 것 없어요. 점심 밥 먹었느냐고요? 이 뜨거운 날씨에 왜 이려고 있어요?”

여자의 얼굴은 온통 땀범벅이었다.

“우리 집에 올라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마십시다.”

내가 그녀의 작은 손을 잡자 여자는 순순히 나를 따라 나섰다. 아파트로 올라와 얼음 띄운 냉수 한 컵을 내밀자 그녀는 단숨에 꿀꺽꿀꺽 물을 마셨다. 갈증이 심했던 가보았다. 에어컨 앞에 그녀를 앉혀 놓고 재빨리 밥상을 차렸다. 여자는 두리번거리며 고개를 돌려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리 와요. 밥 먹읍시다. 나도 배고파요.”

나는 그녀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자세히 보니 여자가 입은 원피스는 유명 메이커의 라벨이 붙어 있었고 색상이며 디자인도 보통 수준을 넘어 있었다. 얼음 띄운 미역 냉국을 한 그릇 떠서 그녀 앞에 놓아주자 슬픈 눈으로 하염없이 미역 냉국을 들여다보았다.

“왜요? 미역 싫어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얼른 미역 냉국을 그녀 앞에서 밀어냈다.

“그럼 어찌나. 국이 없으니...”

여자는 말없이 한 입 가득 밥을 떠 넣고 열무김치를 집었다. 열심히 밥을 먹는 그 순간만큼은 어디로 봐도 그녀가 비정상적인 여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괜스레 잘 먹는

여자의 입맛을 다칠 가봐서 다른 반찬을 권하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한 채 나 역시 식사에 열중하는 척 하기로 했다.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우고 수저를 놓았다.

“밥 더 먹어요.”

여자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옆으로 밀쳐 둔 미역 냉국을 가리키며 여자가 처음으로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 같았다.

“애기 낳고 먹는 거야. 저거는, 먹으면 혼나.”

그 말을 들으며 여자가 임신부의 뒤편 따라 다닌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애기 낳고 미역국 먹어 봤어요?”

그 말에 여자는 식탁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현관으로 달려 나갔다. 보조기가 잠긴 문을 열지 못해 한창 씩씩거리다가 내가 문을 열어주자 황급히 나가 버렸다. 무엇이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미역국과 임신부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발견해 낸 것이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풀렸다. 마켓에 가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경비실에는 오래 전에 그만 둔 경비 아저씨가 놀러 와 있었다.

“어머, 아저씨 오래간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예, 대표님. 여긴 여전하네요. 저 미친 여자도 여전하고...저 여자 정말 안 됐어요.”

“저 여잘 아세요?”

“그럼요. 여기 살았었어요.”

“그래요? 언제요?”

“대표님 이사 오시기 직전까지 살았지요. 아마.”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남편 놈이 저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 시어머니도 한 몫 했지만.”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인 즉 미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밖에 여자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말로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만삭의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만삭의 여자는 아기를 낳았고 미친 여자는 그 산모의 산후 뒷바라지까지 해야만 했다. 아기를 들여다보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웃음꽃이 피었고 밤이면 남편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아기 엄마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달아걸었다. 여자가 신경정신과를 드나들다가 급기야는 입원했고 남편은 그 사이에 이사를 가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요?”

“이사 간 줄도 모르고 좀 나왔다고 좋아서 집이랍시고 찾아 왔다가 이사 갔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미쳐 버린 거죠.”

“세상에...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동네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 갔어요?”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저 건너 아파트로 갔는데 미친 여자만 모르는 거지요.”

그날 밤 나는 밤새 뒤척이며 미친 여자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며 치를 떨었다. 미역국을 슬프게 들여다보던 선량한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배신감에 떨며 온전한 정신을 놓아버린 그녀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날이 밝아 미친 여자가 놀이터에 다시 얼굴을 드러냈을 때 나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려가 그 여자를 자동차에 태웠다. 경비 아저씨가 일러준 대로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로 데려갈 참이었다.

어쩌면 우리 아파트에서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지도 몰랐다. <노수민/작가>



경희대 국어국문과 졸업했고, 1969년 제 12회 경희인문학상 소설부문 수상으로 등단했다. 1971년 제 13회 경희문화예술상 수상하고, <고독한 파수꾼>으로 1979년 중앙일보 1회 문예대상 장편소설부문을 수상하면서 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다. 그 외 1994년 한겨레 문학상 수상(불바다-일본어 역), 2002년 한국 소설문학상(광대들의 들판에 비는 오지 않는다)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황홀한 城>, <위험한 戀歌>, <아무도 없었던 겨울> 등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달래를 찾습니다>, <미완의 사랑> 등 많은 작품을 출간했다.



올리브 오일

고대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위대한 치료제'라고 불렀으며, 그리스 시인 호모는 '호르는 금'이라고 예찬했던 올리브 오일이 현대에까지 각광을 받고 있다. 심지어 어느 백화점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부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 1위로 올리브 오일이 뽑힌 적도 있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올리브 오일에 대한 맹신보다는 그 효능과 이용 시 주의점을 알아보고 구입하자.

올리브 오일이란?

올리브나무(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추출된 기름으로 올리브나무는 터키가 원산으로 구약성서에서부터 그 기록이 있는 아주 오래된 식물이다.

주요 분포지역은 지중해 연안 국가와 미국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 온실이나 분재로 길러질 뿐 기후와 토양이 맞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올리브 오일이 왜 좋은가?

천연 항산화제가 남아 있고, 발화점 높아 쉽게 산화되지 않아 칼로리 낮아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 및 피부 미용에 효과적

올리브 오일은 식용유와 달리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내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천연 항산화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품질 면에선 단연 으뜸이다. 또, 발화점이 220℃로 일반 식용

유보다 높아 가열해도 쉽게 산화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몸속의 유해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식물성 기름 가운데 가장 높고, 필수 지방산인 올레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새우나 오징어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이 제격이라 할 수 있다.

올리브 오일의 종류

산도에 따라 등급 나뉘지고, 등급별 가격차 커

올리브 오일은 산도에 따라 크게 버진과 퓨어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 가격차가 크므로 용도에 따라 알맞은 등급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버진 올리브 오일은 다시 엑스트라 버진과 파인 버진, 일반 버진으로 나뉘고, 퓨어 올리브 오일은 정제 오일과 버진 오일을 섞은 것이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맛과 향이 완벽하고 산도가 1%이하인 것으로 올리브 오일 중에서 최고의 등급으로 꼽힌다. 향이 진해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요리에 쓰면 좋다. 또 비타민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클렌싱이나 마사지 등 피부 미용에도 순도 100%의 무자극 천연 화장품 기능을 한다. 퓨어 올리브 오일과 파인 버진 올리브 오일은 높은 온도에서도 타지 않아 구이나 볶음, 튀김 등 열을 가하는 요리에 좋다.

좋은 올리브 오일 고르기과 보관방법

산도 낮은 것일수록 좋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일반적으로 산도가 낮을수록 맛이 깊고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컵에 올리브 오일을 따라 흔들어 퍼진 향기를 맡았을 때 기름 냄새나 알코올 냄새가 나면 품질이 낮은 올리브 오일이다.

고급 올리브 오일수록 입 안에서 풀 향기와 과일 향기 같은 상큼한 향이 난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끝맛이 아릿하게 매운 것이 특징이다. 삼킬 때 살짝 매운 느낌이 들면서 뒷맛이 오래 지속되면 좋은 오일이다.

올리브 오일을 살 때는 되도록 빛에 노출이 덜된, 선반 안쪽의 것을 고른다. 유리병에 담긴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라벨을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라벨에 제작자의 이름이나 농장의 이름 등이 표기돼 있으면 좋은 품질의 오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보관할 때는 빛이 없는 그늘진 곳에 두고 뚜껑을 닫아둔다. 보관 온도는 10 ~ 26℃정도가 적당하다. 냉장보관하면 색깔이 탁해지고 굳어버리기도 하는데, 실온에 두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상한 것은 아니지만 투명한 느낌이 없어진다.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1~2년 정도이지만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올리브 오일의 7가지 효능

1.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성인병을 예방한다.

불포화 지방산, 토코페롤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를 막고 세포막을 강화시켜 각종 심장 질환과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해준다.

2. 노화방지와 장수에 도움을 준다.

토코페롤과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에서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켜 노화를 억제해 기억력 감퇴와 알츠하이머병을 막아준다.

3. 소화를 돕고 위통을 치료한다.

위액의 분비를 조절해 궤양을 치료하고 복통을 완화하며 소화를 돕는다.

4. 임산부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다.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 성분이 임산부(태아)와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와 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

5. 변비를 예방한다.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2 스푼씩 먹거나 식수에 10% 분량을 섞어 마시면, 신진대사와 통변이 원활해져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6. 간 기능을 돕고 당뇨병을 예방한다.

몸에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담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을 조절해 당뇨병을 예방해준다.

7. 순도 100%의 무자극 자연 화장품으로 피부를 보호한다.

올리브 오일의 지질은 사람의 피부와 유사해 피부의 자생력을 향상시켜 피부 스스로 유수분 밸런스를 찾고 세포를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부암 억제 효과가 있으며,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 곳에 살짝 바르면 트러블이 진정된다. 비듬이 심한 사람에게도 좋다.



화끈하고 얼큰한 매운요리

매운 음식은 입맛을 돋우고 스트레스 해소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매운 맛을 내는 대표적인 재료인 고추장과 고춧가루는 땀을 내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가끔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매운 요리를 준비해보자.

고추장수육



재료> 돼지고기 목살 400g, 향신국물(양파 1/4개, 마늘 4쪽, 생강 1쪽, 대파 1/3대, 통후추 1작은술, 물 7컵), 두반장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배추김치 1/2포기

〈만드는 방법〉

- ① 돼지고기 목살은 2~3등분으로 잘라 향신국물 재료들과 함께 20분간 삶는다.
- ② 돼지고기를 젓가락으로 찢어보아 잘 들어가면 두반장과 고춧가루를 넣어 간이 배도록 중간 불에서 15~20분간 더 끓인 후 불을 끈다.

- ③ 고기는 뜨거울 때 한입 크기로 잘라 김치와 함께 낸다.

소고기감자매운조림

재료> 쇠고기 200g, 감자 2개, 양파 1/2개, 붉은 고추 2개, 대파 1/3대, 양념(간장 3큰술,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다시마물 2컵, 깨소금·참기름 1/2큰술씩

〈만드는 방법〉

- ① 쇠고기는 불고기감으로 준비해 한입 크기로 자르고 감자도 같은 크기로 자른다. 양파



는 세로로 4등분하고 붉은 고추와 대파는 어슷 썬다.

- ② 분량의 재료를 섞어 양념을 만든다.

③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쇠고기를 넣어 볶다가 감자와 양파를 넣고 휘저은 후 다시마물과 양념을 부어 조린다.

④ 조림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로 줄이고 붉은 고추와 대파를 넣은 다음 국물이 1/3 분량으로 남을 때까지 조린다.

- ⑤ ④에 깨소금을 고루 뿌려 낸다.

신김치생태매운찜

재료> 생태 1마리, 배추김치 1/3포기, 무 80g, 청·홍고추 2개씩, 대파 1/2대, 양파 1/2개, 다시마물 1 1/2컵, 찜양념(간장 2큰술, 청양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1/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생강즙 1큰술, 설탕 1큰술, 깨소금·참기름 1/2큰술씩, 후춧가루 적당량)

〈만드는 방법〉

- ① 생태는 손질하여 4cm로 토막낸다. 배추김치는 4cm 길이로 자르고 무는 1.5×5cm 길이로 썰고 양파는 4쪽으로 자른다. 대파와 고추는 길게 어슷 썬다.
- ② 분량의 재료를 고루 섞어 찜양념을 만든다.
- ③ 냄비에 모든 재료를 담고 찜양념을 끼얹은 후 다시마물을 부어 끓인다.



- ④ 찜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로 줄여 국물이 자작하게 남을 때까지 찜 낸다.

낙지버섯볶음

재료> 낙지 1마리, 새송이버섯 4개, 양파 1/2개, 당근 1/3개, 대파 1/2대, 풋고추 2개, 붉은 고추 1개, 물 1/2컵, 양념(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간장 1 1/2큰술, 설탕 1큰술, 다진 청양고추 3개 분량,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2큰술, 청주 2큰술, 깨소금·참기름 1큰술씩, 후춧가루 약간, 식용유 2큰술)

〈만드는 방법〉

- ① 낙지는 내장과 먹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6cm 길이로 자른다. 새송이버섯은 길이로 얇게 자르고 양파, 당근은 채썬다. 대파, 풋고추, 붉은 고추는 어슷 썬다.
- ② 분량의 재료를 고루 섞어 양념을 만든다.
- ③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당근을 볶다가 풋고추, 붉은 고추를 넣어 볶는다. 야채가 반 정도 익으면 새송이버섯과 낙지를 넣고 살짝 볶아 그릇에 덜어둔다.
- ④ 팬에 양념과 물을 부어 끓여오르면 ③을 넣어 물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센 불에서 볶는다.





피부 건조증, 목욕 횟수 줄이고 보습제 발라 주세요!

가을이 되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우리의 몸에도 변화가 온다. 그 중에서도 쌀쌀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에 우리 몸이 노출되면서 피부표면의 각질층에 함유된 수분이 감소해 건조성 가려움증이 찾아온다. 팔, 다리의 바깥쪽, 허리띠나 양말의 고무줄이 조이는 곳이 가려워 잠을 설치거나 고통스러운 적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피부 건조증에 대해 알아본다.

●●● 건조성 습진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에 건조한 인설(피부 비듬)과 홍반(빨간 반점)이 나타나는 것을 건조성 습진이라고 하는데, 아토피 피부염, 건선이 있는 환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겨울로 갈수록 점점 악화된다. 당뇨병, 신부전과 같은 전신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가을이 되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져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 있다.

●●● 노인성 소양증

노인의 20%가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특별한 피부병변이나 전신성 질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려움증을 노인성 소양증이라고 하며, 특히 수분을 함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건조한 피부와 관련이 있다.

●●● 피부 건조증의 원인

최근 들어 피부 건조증으로 인해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가정마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고 운동이나 수영으로 거의 매일 목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잦은 목욕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한다. 그 이유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표면에 있는 기름기와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 피부 건조증 예방하려면

- 목욕 횟수를 줄이고, 강한 비누, 때를 미는 타월, 장기간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은 피한다.
- 목욕 후에는 피부의 습기를 유지해줄 수 있는 보습제 로션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른다. 유분 크림도 발라줘 잔주름을 막아준다.
-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루 6~7잔의 물을 마신다.
- 실내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하고, 옷은 면제품으로 가볍게 입는 것이 좋다. 습도는 가습기를 틀어서 5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이런 점 주의하세요!

- 피부가 가렵다고 식초나 소금물을 바르거나 씻어내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온천욕도 과도하면 피부에 해가 될 수 있다.
- 연고나 로션을 바르기 전에 꼭 피부를 깨끗이 씻는 환자가 있는데 피부 외용제는 덧붙여 발라도 지장은 없지만,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주의한다.
- 피부가 가렵다고 무조건 긁으면 원래 없던 피부병도 생길 수 있어 가려운 부위에 보습제를 바르거나 다른 곳에 신경을 써 긁는 것을 자제한다.

집안에 숨어있는 나쁜 냄새를 없애자!

■ 싱크대 냄새

식초를 희석해 붓는다. 물 반컵에 식초 2큰술 정도가 적당하며,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뜨거운 물을 흘려보낸 후 식초물을 붓는다.

■ 전자레인지 안의 냄새

레몬이 효과적. 물 한컵에 레몬 두 조각을 넣어 렌즈 온도를 '강'으로 한 상태에서 2~3분 가열해준다. 보리차나 홍차 한 잔 또는 귤껍질을 넣고 가열해도 냄새를 없앨 수 있다.

■ 냉장고 속 냄새

소독용 알코올로 닦은 뒤 마른 수건으로 닦아 내면 살균효과도 있고 나쁜 냄새도 없어진다. 소독용 알코올 대신 김이 빠지거나 남긴 맥주를 이용해도 된다. 냉장고 탈취제로는 원두커피나 녹차 찌꺼기, 과일껍데기가 좋다.

■ 플라스틱 용기 속 냄새

한 번 밴 음식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 푸른 잎 채소를 잘게 썰어 그릇에 넣고 뚜껑을 덮어 하루쯤 놓아두면 그릇에 배어 있는 냄새가 사라진다.

■ 보온병(물병) 냄새

숯으로 제거할 수 있다. 뜨거운 물로 병 속을 깨끗이 씻은 다음 숯을 잘게 잘라 하루쯤 넣어둔

다. 홍차와 커피 냄새가 배어 있을 때는 중성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씻은 후 뚜껑을 열어 두면 된다.

■ 쓰레기 냄새

차나 커피 찌꺼기를 못 쓰는 스타킹이나 가제 수건에 싸서 쓰레기통에 넣어두거나 쓰레기통 주변에 에탄올을 뿌려두는 게 냄새 제거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쓰레기통은 3~4일에 한 번씩은 깨끗이 씻어 잘 건조시켜준다. 또한 쓰레기봉투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 놓으면 음식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해 냄새를 줄일 수 있다.

■ 생선 냄새

석쇠나 프라이팬에 생선을 구운 후 나는 생선 냄새를 없애려면, 굽고 난 프라이팬에다 간장을 조금 부으면 간장냄새가 생선냄새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생선을 손질하고 난 뒤 손이나 도마의 비린내는 레몬이나 생강즙, 식초 등으로 없앨 수 있다. 비린내가 밴 냄비는 차 찌꺼기와 물을 함께 넣어 10여분 끓여준다.

■ 페인트 냄새

머칠이 지나도 냄새가 쉽게 없어지지 않아 머리가 아프기도 한 페인트 냄새는 프라이팬에 오래된 차 잎을 태워 연기가 집안에 퍼지도록 하면 2~3시간 뒤 페인트 냄새가 말끔히 사라진다.

환경호르몬이란?

환경호르몬은 학술용어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s)라고 하는데, 이들 내분비계 교란 물질들은 동물이나 사람의 체내에 들어가서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화학물질로 정의되며, 1997년 5월 일본의 학자들이 NHK 방송에 출연하여 “환경 중에 배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내에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여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신조어이다.

이들 환경호르몬은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 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1996년 미국에서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이 발간된 이래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태계 및 인간의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쳐 전세계적으로 생물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문제와 함께 세계 3대 환경 문제로 등장하였다.

‘환경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환경호르몬의 화학적 구조가 생체 호르몬과 비슷해 몸속에서 마치 천연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모방(mimic)’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짜 호르몬은 진짜 호르몬인양 행세하면서 몸속 세포 물질과 결합해 비정상적인 생리작용을 낳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짜 호르몬이 할 수 있는 역할 공간을 가짜 호르몬이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봉쇄(blocking)’라고 한다. 현재 알려진 환경호르몬

은 ‘모방’ 또는 ‘봉쇄’의 두 가지 작용을 하고 있다.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로는 각종 산업 화학물질(원료물질), 살충제, 제초제 등의 농약류, 유기중금속류,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류, 식물에 존재하는 phytoestrogen 등의 호르몬 유사물질,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합성 에스트로겐류 및 기타 식품 및 식품 첨가물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 목록에서 67종, 일본 후생성에서 143종, 미국에서 73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분비 장애 관련 연구 결과 및 사례가 보고된 물질로는 음료수 캔의 코팅물질 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와 농약이나 변압기절연유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사용이 금지된 DDTs와 PCBs, 소각장의 다이옥신류, 선박 바닥의 방오제인 유기주석화합물(TBT) 등이 있고, 기타 합성세제의 원료인 알킬페놀과 요즘 말들이 많은 컵라면 용기의 원료로 쓰이는 스티로폴의 주성분인 스티렌이성체 등이 환경호르몬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환경호르몬은 인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성의 정자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여성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지방에 축적된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은 모유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의 ‘눈높이환경교실’에서 발췌〉

단풍이 아름다운 산으로!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한반도의 산과 들이 화려한 가을 옷을 갈아입고 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높고 낮은 산들이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의 단풍으로 물들어 보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유혹한다. 신발 끈 단단히 매고 아름다운 단풍 명산으로 떠나보자.

월악산국립공원 (충북 제천시)

월악산은 백두대간이 소백산에서 속리산으로 연결되는 중간의 위치에 있으며, 산세가 험준하고, 기암단애가 맹호처럼 솟아 심산유곡과 폭포 등이 어우러져 한껏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주변에 충주호반과 청풍호반을 비롯하여 문경새재 국립공원, 단양적성의 선사유적지와 석회암지대에 형성된 많은 동굴, 청풍의 문화재단지 등 문화경관자원이 산재해 있다.

여름철에는 풍부한 수량의 계곡물이 무더위를 잊게 하며 겨울철 눈 쌓인 산과 계곡은 가히 신선들이 노닐던 경치라 할 만큼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어 제2의 금강산, 또는 동양의 알프스라 불린다. 특히 옛날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대로, 덕주골에 있는 유적지들은 마의태자와 덕주공주의 한 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두륜산국립공원 (전남 해남군)

두륜산은 사찰, 유적지 등이 많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관광지로 한반도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높이 703m의 산으로, 난대성 상록활엽수와 온대성 낙엽 활엽수들이 숲을 이루, 식물분포학상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산이다. 또한 역세발이 무성하며, 여덟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 정상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곳곳의 다도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또한 이 산에는 신라 진흥왕 5년(514년) 아도화상이 세운 대둔사(대흥사)가 있으며, 서산대사와도 관련이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절 안에는 표충사를 비롯하여 탑산사 동종 등 보물 4점, 천연기념물 1점과 수많은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울창한 숲이 이루는 가을 단풍과 푸르른 동백나무는 이 산의 자랑거리이다.

팔공산국립공원 (경북 영천시)

대구 도심에서 동쪽으로 22km 거리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5개 군에 걸쳐있는 팔공산은 비로봉(1,192m)을 가운데로 동봉(1,155m)과 서봉(1,041m)으로 줄기를 뺀고 있다. 천년이 넘는 동화사를 비롯한 수십 개의 사찰과 암자가 있으며, 울창한 수림, 맑은 물이 흐르는 수 갈래의 계곡 속에 이른 봄의 진달래, 늦봄의 영산홍, 여름엔 후박등이 청초하게 피어나고, 가을에는 단풍과 활엽수, 겨울의 설경 등이 신비의 경치를 이룬다. 동편에 영천 은해사는 거조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 등 8개의 암자와 국보 14호인 영산전과 보물 3점이 지정되어있고 건들바위와 기기암의 장군수 및 안홍폭포가 있는 명승지다.

산 이름	첫 단풍	절정일	해발고도(m)
금강산	9. 28	10. 18	1,638
설악산	9. 30	10. 20	1,708
오대산	10. 3	10. 19	1,563
치악산	10. 10	10. 25	1,288
지리산	10. 14	10. 23	1,915
월악산	10. 16	10. 27	1,097
북한산	10. 18	10. 31	836
가야산	10. 19	11. 2	1,430
속리산	10. 20	11. 1	1,058
한라산	10. 20	11. 1	1,950
계룡산	10. 23	11. 2	845
팔공산	10. 22	10. 31	1,192
무등산	10. 24	11. 6	1,187
내장산	10. 23	11. 6	763
두륜산	11. 4	11. 17	703

〈주요 산의 단풍 예상 날짜〉



이달의 읽을 만한 책

◆ 피의 언어 제인 정 트렌카 著, 송재평 譯 / 와이즈리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주인공이 대학을 졸업한 후 친엄마와 조국을 다시 만나고 또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나가는 자전적인 이야기이다.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진실되고, 감동적이다. 저자는 작품 속에서 "전후 관계의 단서들을 찾아내어 한 가족의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것이 내 임무이다 - 기억과 상상의 새로운 쉼트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피의 언어』는 그 임무의 성공적 결과이다. 문학의 언어가 결핍과 마음고생으로 단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며, 문학이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갈수록 엽기적이 되어가는 우리 젊은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추천위원 : 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 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최효찬 / 예담



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분위기다. 자식은 부모의 '말'로 교육되는 것이라기보다 부모의 인격, 집안의 분위기, 식구들이 관계를 풀어가는 능력 등으로 교육된다.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은 퇴계 이황이나 서애 류성룡, 고산 윤선도, 다산 정약용처럼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인물의 자녀교육법을 들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만 일했을 것 같은 이들이 하나같이 자녀교육에 힘을 기울였다는 점은 가문 중심의 조선이었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했을 것 같은 이들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새롭고도 호기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한양입성'이라는 특명을 내린 점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주변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원칙으로 그 옛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실천했던 경주 최부잣집의 예는 오늘날에도 모범이 된다. 때때로 손해 볼 줄 아는 아이로 키우라는 점을 강조했다. 운약 이함의 종가의 정신도 곱씹을 만하다. <추천위원 : 이주향(수원대 교양학부 교수)>

◆ 존재의 심리학 아브라함 H. 매슬로 著, 정태연 譯 / 문예출판사



이 책은 현대 심리학의 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행동주의, 정신분석학, 인지주의와 달리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있는 그대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매슬로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매우 다양한 동기 혹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동기는 크게 결핍동기와 성장동기로 구분된다. 매슬로가 강조하려는 바는 우리 인간이 성장동기에 근거해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존재, 다시 말해 자신과 세계를 존재 그 자체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여기서 가장 통합된 상태를 이룬 존재라는 점이다. 이런 매슬로의 주장은 특히 프로이트의 심리학과는 매우 다른 패러다임이며, 인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우면서도 근원적인 성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추천위원 :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엄마와 함께 하는 어린이 농촌체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농촌문화
를 체험하고 우리
농촌·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
도록 하기위해 농림부와

대산농촌문화재단 후원으로 본회는 7월~9월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15개 지부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농촌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8월 24일~26일(3일) 5개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마을에서 농촌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자라나는 새싹처럼 고운 유치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떡메치기를 한 후 맛본 인절미, 초롱박 만들기, 자연생태 학습관 관람 및 들에 핀 꽃도 구경하는 들꽃 기행은 농촌의 푸른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 주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4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평등가정, 열린 가정을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시지부

지난 8월 9일~11일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평등한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평등한 성 인지적 가치관 및 문화를 장려하고 핵가족화 시대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짚어보기 위해 서구, 기장, 진구에 거주하는 280여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평등 가정, 열린 가정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통해 주부들이 여성으로서의 자아의식 및 자긍심을 갖고 양성 평등한 가정문화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유도했다.



쓰레기소각장 방문 시지부

8월 11일 회원 50명이 명지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해 분리수거한 쓰레기의 처리과정을 살펴 보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쓰레기 줄이기 인식 확산과 그 실천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8월 19일에는 시지부와 광주 회원들 45명이 상무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여 쓰레기소각장을 둘러보면서 부산의 쓰레기 소각장과 비교 및 장단점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했다.



인도 되찾기 캠페인

시지부

8월 11일과 16일 회원 30명이 연산로타리에서 인도 되찾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상점의 물건과 오토바이 및 자전거가 인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인도로 걸어 다녀야 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인도 찾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한 거리,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대구광역시지부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

시지부

지난 8월 1일~31일 한 달 동안 대구광역시 8개 구, 군 재래시장 및 하절기 제조업소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회원 25명이 식품 감시원 활동을 전개했다.

냉면 등 하절기 소규모 제조업소 및 취약판매업소 지도단속과 함께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소 선정 신청업소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인천광역시지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 캠프 시지부

8월 17~18일 이틀간 강화 계명원에서 한 부모 가정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프를 가졌다.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통해 '내'가 아닌 '우리'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참석한 청소년들이 바로 건전한 성문화 습득과 양성평등 실현의 주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더불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다.



릴레이식 봉사활동

남동구지회, 서구지회, 남구지회, 부평구지회, 계양구지회, 강화지회

남동구지회는 회원 20명이 학생 120여명과 함께 하천청소를 실시했다. 회원들이 학생들에게 감자와 고구마를 나누어 먹으면서 봉사정신의 소중함과 함께 이웃의 따뜻한 정도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다.

서구지회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300여명의 노인분을 위한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구지회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 주안 5동 길거리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길거리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평구지회는 매월 셋째 월요일에 부평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밑반찬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계양구지회도 회원 10명이 매주 목요일에 관내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중식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화지회는 8월 5일 회원 13명이 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를 실시했고, 22일에는 회원 10명이 강화군청을 지훈련 야간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명예감시원 활동

시지부

지난 8월 11일 광산구 일대에서 송금회 회원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 활동을 전개했고, 26일에는 양동 시장 내 수산물코너에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 직원과 함께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회원 2명(안길자, 장복희)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여부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상무 쓰레기 소각장 견학

시지부

8월 19일 부산시지부 회원들과 함께 상무소각장을 방문하여 쓰레기 처리과정을 견학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환경보전의식을 갖게 되었다.



친목도모를 위한 금강산 여행

시지부

8월 21일~23일까지 본 지부 운영위원과 회원들 19명이 금강산 여행을 했다. 친목도모 및 화합의 시간을 위해 마련한 이번 여행을 통해 회원 간 유대 강화와 함께 말로만 들었던 분단 조국의 현실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 번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었던 깊은 여행이었다.



대전광역시지부

인생의 새로운 시작, 실버 서포터즈로 제2의 인생찾기

시지부

실버세대에게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실버 소비자를 위한 강의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실버세대에 다양한 활동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실버 교육생 30명(55세~70

세 남·녀)을 모집했다.

지난 8월 18일~23일까지 대전지부 2층과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소비자피해예방과 재테크, 건강, 여가, 견학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1일 4시간 2주 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실버서포터즈로 제2의 인생찾기’를 주제로 목원대학교 권중돈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박미희 과장, 충남대학교 김영신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강의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풍요로운 노년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족사랑 · 쌀 사랑 현장 체험학습
시지부

8월 18일 회원 및 자녀 50여명이 우리 쌀이 몸에 좋은 이유와 우리 농업의 중요성, 우리 쌀의 우수성에 대해 알고자 쌀 주요 생산지인 이천시 자재방 아마을 견학했다.

좋은 쌀을 고르는 방법, 쌀의 영양

과 효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옛날 농기구와 현대 농기구를 직접 사용해 보았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 쌀의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 농촌문화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양성평등 가정문화 구현을 위한
가족캠프

시지부

8월 27일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회원 및 가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성평등 가정문화 구현을 위한 가족캠프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한남대학교 김형태 부총장의 강의와 레크레이션 셀파 한명환 대표의 진행으로 다양하게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양성평등 의식함양과 함께 양성 평등한 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울산광역시지부

의약품 판매가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시지부

8월 1일~3일(3일간) 회원 10명이 대·소형 약국과 프랜차이즈 약국 등 55곳을 직접 방문해 다소비 의약품 38종의 판매가격조사 및 가격표시 여부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엄마와 함께 하는 농촌체험학습
시지부

8월 25일 회원 및 자녀 45명이 양산 배내골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농촌체험학습에 참여했다. 떡 만들기, 두부 만들기, 황토 염색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모시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과 함께 농촌사랑 의식도 고취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청소년 탐사대 활동

시지부

8월 27일 청소년 탐사대원과 지도교사 및 회원 50여명이 태화강에 서식하고 있는 식생조사, 플랑크톤 및 수질을 조사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탐사활동을 펼쳤다.



강원도지부

감자 큰 잔치
평창군지회

‘건강을 심어주는 감자, 행복을 열어주는 강원도’라는 주제로 강원 감자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감자 큰 잔치가 8월 11일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대관령 일원에서 펼쳐졌다.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로 본 도지부도 참여해 행사 도우미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제3회 아줌마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동해시지회

지난 8월 12일 회원 20명이 망상해수욕장에서 열린 아줌마들의 여름축제인 ‘제3회 전국 아줌마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했다.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다 래프팅 대회와 조개 줍기 대회 등을 통해 소중한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었다.

동강 물소리 합창 페스티벌
영월군지회

지난 8월 8일 문화예술관, 아름답고 순수한 사람들이 깨끗한 자연과 함께 천상의 목소리로 선사하는 감동적인

경기도지부

소비자교육 실시

도지부

8월 10일, 17일, 25일 본 지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4개)의 실무자 8명이 매탄 4동과 영화동 사무소 등 4개 시범 동의 일반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소비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순회 강의했다. 이에 본회는 특수판매와 세탁물 취급 요령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축제인 동강물소리합창페스티벌에 회원 120여명이 참가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여름을 보냈다.

자연환경 보존 캠페인

속초시지회

지난 8월 8일 속초 해수욕장에서 회원 30명이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자연환경 보존 캠페인을 전개했다.

충청북도지부

소비자교육실시

도지부

지난 7월 28일 여성회관(구)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부터 물품 구입, 고장과 불만족에 대한 서비스 신청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아 상품과 관련된 법규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남한강상류살리기 치어방류하기 단양지회

지난 8월 1일 남한강상류에서 수자원공사 직원과 함께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작은 사랑 실천인 치어 방류에 동참했다.

충청남도지부

저출산 실태조사 토론회

도지부

시대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경제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6월~7월 사이에 저출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8월 26일 공주문화원 회의실에서 회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대 대학원 우숙희 교수와 윤영희 한밭대 보건진료소장의 주



제발표를 시작으로 저출산 현황과 그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 축산물 소비촉구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도지부

8월 26일 회원 50명이 공주시가지에서 우리 축산물 소비촉구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우수한 맛과 품질이 좋은 우리 축산물을 애용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물론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교육

논산시지회

8월 9일 취암동 사무소회의실에서 회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물가안정과 관련한 소비자보호교육을 실시했다. 건양대학교의 김승중 교수는 교육가로 인한 가정경제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용 홍보 캠페인

천안시지회

8월 10일 남산 중앙시장 일원에서 회원 45명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회원들이 직접 구매한 100만원 상품권으로 건어물과 야채류 등 물품 구입을 현금처럼 대용하는 실천을 통해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 홍보에 적극 동참했다. 회원들은 일반소비자들에게 상품권 구매 홍보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행락철 피서지 청소년선도 캠페인 서천군지회

8월 1일 춘장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회원 30명이 행락철 청소년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래의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며

관련 리플렛 500부를 제작 배포하였다.

전라북도지부

릴레이식 수재민돕기 활동

전주시지회, 정읍시지회, 부안군지회, 완주군지회, 순창군지회, 무주군지회, 진안군지회, 고창군지회

전주시지회는 8월 8일 KBS 수재민 돕기 행사에 성금을 전달했다.

정읍시지회는 8월 회원 10명이 정읍시 감곡면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씻어주는 등 집안청소를 도왔다. 9일에는 회원 12명이 고추다듬기와 고추발 정리하기 등 수해지구인 이평면 지치마을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부안군지회는 4일과 5일 이틀간 부안군 줄포면으로 회원 7명이 찾아가 집안 가재도구 세척과 빨래 봉사활동을 했다.

완주군지회는 6일과 7일에 평촌면을 회원 5명이 찾아가 과수원과 생강밭 흙 복돋우기를 도왔다.

순창군지회에서는 8일 부안군 줄포면 수해민을 회원 7명이 된장과 고추장을 준비해 전달하면서 위로 격려했다.

무주군지회는 9일과 10일 회원 2명

씩 안성면 수해지역으로 삼 개는 일손을 도와주고 왔다.

진안군지회는 5일 동양면으로 회원 5명이 수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설거지, 빨래, 가재도구 씻어주기 등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고창군지회는 8일 회원 8명이 부안 줄포면 및 외곽지역의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세탁, 가재도구 씻어주기 등의 청소봉사활동을 전개했고, 13일에는 KBS 수재민돕기에 성금을 전달했다.



전라남도지부

전라남도평생교육관 개관식에 참석

8월 22일 광양시 전라남도평생교육관 개관식에 도지부 임원 및 회원 20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며, 교육관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제공과 평생교육 실현의 장으로써의 역

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시·군 지회 임원 간담회

광양시지회, 강진군지회, 무안군지회, 광양시지회, 곡성군지회

8월 17일 광양시지회를 시작으로 각 시·군 지회별로 전반기 사업보고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부 및 지회간의 결속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무료급식 일일 도우미

여수시지회

8월 31일 회원 30명이 동여수복지관에서 부양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 100여분을 모시고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상북도지부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도지부



8월 8일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위해 본 도지부 사무실을 출발하여 동아백화점과 농협파머스마켓까지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여성지도자대회와 바자회 참석

김천시지회

8월 12일 장애인복지관 주체로 열린 바자회 행사에 회원 전원이 참석하여 바자회물품 판매 봉사활동을 했다. 30일에는 여성지도자대회에서 본 지회가 단체상 수상 및 박경순 회원이 개인 봉사상을 받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단체로서의 위상 정립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릴레이식 봉사활동

상주시지회, 영천시지회, 영주시지회, 군위군지회, 고령군지회

상주시지회는 8월 10일 회원 6명이 하동의 오이재배 농가를 찾아가 오이 따주기 선별작업을 도와주었다.

영천시지회는 8월 25일 을지훈련시 경찰서 시청 소방대 직원들에게 백설기 3말을 전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격려했다.

영주시지회는 17일 하망동 성당에서 회원 9명이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 제공 도우미로 봉사활동을 했다.

군위군지회도 8월 23일 을지훈련시 군청 경찰서 직원들에게 떡과 격려금을 전했다.

고령군지회는 8월 22일 회원 8명이 수해피해 지역인 장수마을을 방문해 피해복구를 위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왔다.

경상남도지부

조직관리

도지부

8월 9일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적의 선정으로 장소를 방문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부대학과 부부대학 활성화 및 주부교실 활성화 방안을 논했다.

얼음골 친환경 탐방 및 견학

밀양시지회

여름의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산내면 남명리 천연기념물 제 224호인 얼음골 일대에서 펼쳐진 '밀양시 얼음골 동의제 축제' 행사에 회원 35명이 소년소녀가장 15명과 함께 얼음골 호박소를 방문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및 쓰레기 줍기 등 자연보호 활동을 전

개했다.



제주도지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태조사

도지부

8월 1일 ~15일까지 제주도내 중문, 함덕, 협재 해수욕장을 회원 5명이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함께 휴가철 피서지 남은 음식물(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정화활동과 지역역사 바로 알기 탐방

남제주군지회

8월 9일 회원 20명이 관광객 및 지역주민 이용이 많은 하동해수욕장을 방문하여 '내 고장 가꾸기'의 일환으로 청결한 인상을 심어주기위한 해수욕장 입구청소를 실시했다.

12일에는 회원 50명 지역역사를 바로 알기위해 제주 지역에 위치한 역사

적 명소인 추사관과 일제시대의 격전지, 4·3 사건 관련 장소 등을 탐방하여 제주지역 역사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가졌다.

휴양지 물가안정사업 및 이동소비자고발센터운영

서귀포지회

지난 8월 3일 중문해수욕장에서 회

원 30여명이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이하여 휴양지 바가지요금 징수 등 부도덕한 상거래질서와 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동소비자고발센터를 열어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상담구제를 실시했다.

건전상거래질서확립캠페인 전개

9월 15일 회원 60여명이 명동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건전소비 및 상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 주부교실개시판 ●

제66기 주부대학 수강생 모집

주부들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1977년부터 주부대학을 운영해오고 있는 주부대학의 제65기가 6개월간의 전 교육과정을 마치고 9월 23일 오후2시 중구구민회관 1층 강당에서 수료식을 갖는다. 이에 본회에서는 제66기 주부대학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개 강 일 : 2005년 10월 5일(수) 10:30
- 교육과정 : 6개월 (2005. 10. 5 ~ 2006. 3. 24)
- 교육시간 : 주 2회(월, 수) 10:30 ~ 12:00(90분 강의)
- 교육내용 : 여성과 자아성취, 지압법, 혼례예법, 한국인의
얼과 문화, 시대변화와 여성, 소비와 환경, 국
제경제와 한국경제 등 40개 강좌
- 강 사 진 :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권위자

제8기 주부대학원 수강생 모집

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주부대학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주부대학 수료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개 강 일 : 2005년 11월 4일(금), 10:30
- 교육기간 : 1년 (주1회 수업 : 목요일)
- 모집기간 : 2005년 10월말까지
- 접수 및 문의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무처
(02-2265-0637, 3627, 3628)

제12회 주부대학동문회 운동회

본회에서는 주부대학동문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해마다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다음과 같이 운동회를 개최하오니 주부대학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10월 25일(화) 10:30
- 장 소 : 과천 경마공원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 역)
- 참 가 비 : 1만5천원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는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전화, 팩스, 서신, 인터넷 및 방문 등 소비자상담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전 화 : (02)2273-2485, 6300, (02)2265-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100-015)
- 홈페이지 : www.nchc.or.kr